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86호 [무게 제25429호] 주제 105 (2016)년 10월 12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공화국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온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온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무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시며 무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무바공화국 내각 수상, 내무부장관인 무바공화국 대통령,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말디브 제도공화국 대통령, 만나방공화국 대통령, 몽골 대통령, 바레인왕국 국왕,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대통령, 수리아인민공화국 대통령, 캄보디아 왕국 국왕, 라이왕국 국왕, 과키스탄인민공화국 대통령, 필리핀공화국 대통령인 필리핀나

해방조치 집행위원회 위원장, 카라르국가 주장, 따위키스탄공화국 대통령,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대통령, 하세미드르단왕국 국왕,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통령,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인디아공화국 대통령,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상무위원회 의장, 보르부갈공화국 대통령, 판마리노공화국 집정관들, 기네공화국 대통령, 나미비아공화국 대통령, 마르코프왕국 국왕, 부룬디공화국 대통령, 수단공화국 대통령, 세네갈공화국 대통령,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국가수반, 케니아공화국 대통령,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대통령, 카메룬공화국 대통령, 콩고공화국 대통령, 콩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튀니지공화국 대통령,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앙골라공화국 대통령, 우간다공화국 대통령, 에리트레아국가 대통령, 예티오프공화국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에리오피아련방민주공화국 대통령이 위문전문을 보내어왔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각 하

나는 에리오피아련방민주공화국 인민과 정부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2016년 9월 키쿠에서 일어난 큰불로 인격 및 물질적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심심한 위문을 표하는바입니다. 우리는 이 슬픈 시기에 피해자가족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과 정부가 심심한 동정을 포함한다. 에리오피아련방민주공화국 대통령 박사 물라 투 레쇼 메 2016년 9월 20일 아디스 아바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우간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우간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우간다대표단

이 11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 하였다. 본사기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조국》이 최장군과 순권주공장에 정중히 모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최장군의 여의 뜻을 좇으시고 농민들의 생활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시면서 밭의 지력을 높이고 수확량이 많은 강냉이를 심으며 산을 잘 리용함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군이 나아갈 길을 밝히 밝혀주시였다. 성충혁명사적지를 현지지도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적지들과 사적물들을 잘 보존관리하며,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조국방위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

이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성충혁명사적지를 찾으시고 당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담은 사진문헌들을 더 발굴하여 모시며 사적지 참관사업을 짜고들며 대하여 가르쳐 주시였다. 순권주공장은 이 뜻을 여러 차례나 찾으시며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게 신발을 만들어 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 질 좋은 구두를 많이 생산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도자육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평안북도당학교에 모시된 모자이크 벽화 《백두산에 오르시어》는 해당부 평안북도당학교를 창설해주시였으며 전국당간부양성기관 교원들의 강습을 마련하시고 역사적인 서원을 보내주시어 당간부양성기관의 기본업무와 과업을 완히 밝혀주시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고있다. 단원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단원시에서 위대한 애국선인의 자취를 남기신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그리며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시였다. 칠서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려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받들어 모시고 당의 명도따라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시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모자이크벽화공공이 해당 단원 등에서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대회가 진행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대회가 10월 18일과 19일 평양에서 진행된다. 대회에서는 총결기인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

2020년까지의 전략계획, 예산 등이 도의되게 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대회참정 70년을 맞으며 다채로

운 행사들도 있게 된다. 본사기자

총정의 200일전투의 격전장마다에서 기적창조의 열풍 세차게 끌어번진다

9.22건설돌격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세로전역에서 결사관철의 불길들 세차게 지져내려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무산군 오봉리, 바천리, 상창리, 봉암리의 살림집건설전투에서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10월 10일까지 600여세대의 1동 4세대, 1동 2세대 단출살림집조공사를 끝내였다. 살림집내부의비장공사, 장식미장공사, 지붕복조공사가 체계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속에 일부 시공단위에서는 지붕복조기를 붙인것을 비롯하여 완공의 날을 앞당기는 성과들이 시간을 다투며 전례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건설구상을 실현하는 길에 자기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 조선은 한다면 기어 이 다그치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조국의 슬기와 기상을 온 세상에 과시할 인민군인들을 비롯한 건설자들은 선군시대 영웅들이고 우리 당의 대표들이니이다.》 함북도 북부피해부진투에서 전회위부의 기적적승리를

북부전선에서 보내온 소식
600여세대의 살림집조공사 완공
9.22건설돌격대
장위할에 대한 당의 전투적 호소뿐 높이 받들고 9.22건설돌격대의 일군들은 첫시작부터 조직정리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었다. 현장지휘부일군들은 자체보장속도이자 살림집건설속도라는 관점에서 우에서 자체를 보장해주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역자원의 정신으로 내부에비출 동원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였다. 세로지구 확산지전선에 동원되던 전투원들과 훈련기재들이 무산군의 피해부진투장에 도착하는 즉시 기초공사에 집결할수 있게 세로트를 비롯한 자체수송을 선행시켰다. 현장지휘부의 면밀한 작전에 따라 제정된 날짜에 로력과 자재, 훈련기재들이 전투장들에 무사히 도착한데 이어 파괴된 40여km의 도로복구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다. 인민보안성리단의 전투원들이 인민사수진, 인민복부전의 면 일장에서 돌격로를 열어나갔다. 이들은 나무방목을 쌓고

막과 골재를 나르면서 빌딩 명으로부터 오봉리까지의 도로를 복구하여 수송로의 물과기를 제일먼저 열었다. 평양시리단과 지강도리단을 비롯한 각 단위의 돌격대원들도 분담로와 상량리를 비롯한 여러곳의 파괴된 도로를 복구하기 위한 철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인민보안성리단의 지휘관들은 짧은 기간에 수송로를 열여제된 각 시공단위의 돌격대원들이 9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살림집건설전투에 집결하였다. 현장지휘부의 정치일군들은 각 시단, 리단의 일군들을 불러 일으켜 돌격대원들의 심장의 피가 혁명열, 투쟁열로 세차게 끓어오르도록 철야정리사업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는 한편 직관선전과 방송선전차량용, 기동방송선전차량용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전투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현장지휘부에서는 시공단위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새 집을 하루빨리 안겨줄 불타는 열의로 돌격대원들의 심장을 불타게 하면서 살림집조공과 추방공사, 지붕복조공사 등이 계속되고 계속 일정을 내달리고 있다. 이들의 땀과 마라 자 강도, 평안남도인민보안국대대를 비롯한 각 대대의 돌격대원들이 화약이 불이 달린것처럼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공사속도를 비상이 높여가고있다. 리단돌격대원들의 비상한 각오와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에 의해 보름 남짓한 기간에 수십동의 단출살림집조공사와 지붕복조, 내외부벽체미

현장에 전투파지를 정하고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결된 문제를 놓고 제때에 대책을 세움으로써 해당 단원들이 결속투로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당의 전투적호소대로 전회위부의 기적적승리를 비롯함으로써 무산에서 새집들이의 꽃바람 제일먼저 뿌릴 심심에 넘친 9.22건설돌격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철야전투에 의해 공사상파는 시간을 다투며 확대되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새형의 트랙도르계열생산준비 적극 추진

금성 트랙도르공장에서 첫 80hp 트랙도르보다 기술적성능이 더 우수하고 운전과 수리, 케일 생산에 편리한 80hp 트랙도르를 생산하여 시운전을 진행하였다. 공장에서는 새형의 트랙도르계열생산준비를 위한 수반공에 달하는 지주, 장비들의 설계 및 제작전투에 힘을 쏟고있다. 이와 함께 현존공작기계의 수리정비 및 이설전투에도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계제작기술의 최신성과에 도달하여 새형의 현대적기계설비들을 세계적수준에서 설계제작하고 계열생산공정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남포시당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철마인 새형의 트랙도르계열생산준비를 빈틈없이 다그치기 위한 조직정리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공장에 강력한 지휘부를 조직하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강적 책임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계열생산준비를 원만히 하도록 적극 고무추동해왔다. 현장지휘부에서는 현장에 나가 집된 문제들을 제때에 풀이 주고 후방사업전선과 관련한 일관적 대책들을 세워주었으며 현관부문들사이의 협동작전을 강화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시, 평행, 황인일동무를 비롯한 지휘부의 일군들은 각 분과 일군들이 자기들이 지닌 책임감

을 깊이 자각하고 이신착의 모범적인 선봉공장을 맡은 트랙도르설계연구소 일군들과 설계전투, 공장의 기술집단은 비정규직의 열의를 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종전의 기록을 깨뜨리고 새형의 트랙도르계열생산준비를 완성한데 이어 계열생산에 쓰일 지주, 장비설계와 기술공정표작성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모형, 주물, 제반, 금속기, 치차장비를 비롯한 여러 직종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짧은 기간에 많은 목형을 제작하고 수천종에 7000여개의 부속품을 손색없이 가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새형의 트랙도르계열생산에 참여할수 있는 전망을 마련하였다.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떠나는 사색과 밤주,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기한전에 열처리공을 일떠세우도록 주철부속품들의 집을 높이고 수명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북파기자 주찬성

감자수확 마감 단계 량 강도에서

향강도안의 농업근로자들과 지인들이 감자수확을 본태있게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변을 일으켜야 합니다.》

향강도안의 농업근로자들과 지인들이 감자수확을 본태있게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변을 일으켜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북부전역에서 새 마을, 새 거리들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우후죽순처럼 솟구쳐오르게 하라.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에서)

이것이 우리 당군의 투쟁기질, 투쟁본때이다

조선인민군 안정남 소속부대에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항일의 용무성이 울려 퍼진 두만강 전역에서 기어오르는 적화위력의 기적적승리를 이어오기 위한 투쟁은 군민투쟁의 열풍은 영웅적인인민군장병들이었다.

그들속에는 지난해 라선시에서 해방투쟁에서 혁혁한 위훈을 세운 단상에 투쟁본때로 살림집공사를 힘있게 다그쳐가는 조선인민군 안정남소속부대 장병들도 있다.

정예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군인 겁쟁자들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려면 산도 뚝고도 바다도 뚝고도 겁사관들의 정신으로 조국방어는 꽃마디에 천지개벽을 안아온것처럼 건설의 대변영기를 펼쳐는 성스러운 투쟁의 선봉에서 계속 영웅적위훈을 세워나감으로써 당군의 자랑스런 모습,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위력을 날림없이 과시하여야 합니다.》

지난 9월 중순 투쟁본때에

불편도 주지 않도록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해당 내용을 가지고 정치사상공세를 집중적으로 벌여나갔다.

이런 구체적인 작업에 부대는 일제히 전두에 진입하였다. 각 부대들사이의 직간선전경연이 벌어지고 방송선전공세, 군악대의 힘찬 사상공세에 의해 공사가 활기차게 진행되어 갔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사가 벌어졌다.

이런 구체적인 작업에 부대는 일제히 전두에 진입하였다. 각 부대들사이의 직간선전경연이 벌어지고 방송선전공세, 군악대의 힘찬 사상공세에 의해 공사가 활기차게 진행되어 갔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사가 벌어졌다.

더욱 세차게 떠오르는 립체전, 섬별전의 불길

조선인민군 류화림소속부대에서 립체전, 섬별전을 힘있게 벌여 살림집건설에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떠돌거리의 70층살림집건설에서 혁혁한 위훈을 세운 부대의 전투력은 회령땅에 인민의 보급자리를 일떠세우기 위한 오늘날의 적진에서도 높이 발휘되고있다.

우리가 닦아놓은 길에 살림집건설을 외따닥 끝내자면 모든 사업을 예견없이 힘있게 벌여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각자각한 부대의 지휘관들은 시작부터 힘이 크게 일발을 벌리었다. 그들은 삼차, 굴착기를 비롯한 모든 건설기계들을 대량으로 동원하여 작업속도를 높여나갔다.

이런 구체적인 작업에 부대는 일제히 전두에 진입하였다. 각 부대들사이의 직간선전경연이 벌어지고 방송선전공세, 군악대의 힘찬 사상공세에 의해 공사가 활기차게 진행되어 갔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사가 벌어졌다.

더욱 세차게 떠오르는 립체전, 섬별전의 불길

조선인민군 류화림소속부대에서 립체전, 섬별전을 힘있게 벌여 살림집건설에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떠돌거리의 70층살림집건설에서 혁혁한 위훈을 세운 부대의 전투력은 회령땅에 인민의 보급자리를 일떠세우기 위한 오늘날의 적진에서도 높이 발휘되고있다.

우리가 닦아놓은 길에 살림집건설을 외따닥 끝내자면 모든 사업을 예견없이 힘있게 벌여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각자각한 부대의 지휘관들은 시작부터 힘이 크게 일발을 벌리었다. 그들은 삼차, 굴착기를 비롯한 모든 건설기계들을 대량으로 동원하여 작업속도를 높여나갔다.

조선인민군 김명호소속부대에서

정예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대건설전투장면에서 창조되는 새로운 건설속도와 시대정신은 천만군민을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의 위훈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합니다.》

적진속에서 새날을 맞이하는 이들은 조선인민군 김명호소속부대 부원장부대이다.

부원장에서 전화위부의 기적적 승리를 이어오기 위한 투쟁은 군민투쟁의 열풍은 영웅적인인민군장병들이었다.

그들속에는 지난해 라선시에서 해방투쟁에서 혁혁한 위훈을 세운 단상에 투쟁본때로 살림집공사를 힘있게 다그쳐가는 조선인민군 안정남소속부대 장병들도 있다.

정예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군인 겁쟁자들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려면 산도 뚝고도 바다도 뚝고도 겁사관들의 정신으로 조국방어는 꽃마디에 천지개벽을 안아온것처럼 건설의 대변영기를 펼쳐는 성스러운 투쟁의 선봉에서 계속 영웅적위훈을 세워나감으로써 당군의 자랑스런 모습,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위력을 날림없이 과시하여야 합니다.》

지난 9월 중순 투쟁본때에

불가능을 모르는 영웅청년신화창조자들답게

백두산 영웅 청년려단에서

백두산 영웅 청년려단에서

수천㎡의 골짜기와 동나무를 확보하면서 기초공사공사를 힘있게 벌여나갔다.

이런 구체적인 작업에 부대는 일제히 전두에 진입하였다. 각 부대들사이의 직간선전경연이 벌어지고 방송선전공세, 군악대의 힘찬 사상공세에 의해 공사가 활기차게 진행되어 갔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사가 벌어졌다.

결정장애 내려치는 결사관철의 기상

결정장애 내려치는 결사관철의 기상

조선인민군 공화소속부대에서 건설공사의 실속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있다.

지난 기간 시계표준을 비롯한 수많은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워 자력생성의 혁명정신이 강한 부대, 힘있는 부대로 명성을 떨쳐온 부대의 군인들은 북부전역에서 건설에서도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내리고있다.

부대의 책임일꾼들은 고급중학교와 유치원을 비롯한 여러 공공건물들을 번 뒤날에

보여주기를 실속있게 진행하여

보여주기를 실속있게 진행하여

가서도 손색이 없게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하고있다.

부원장에서 전화위부의 기적적 승리를 이어오기 위한 투쟁은 군민투쟁의 열풍은 영웅적인인민군장병들이었다.

그들속에는 지난해 라선시에서 해방투쟁에서 혁혁한 위훈을 세운 단상에 투쟁본때로 살림집공사를 힘있게 다그쳐가는 조선인민군 안정남소속부대 장병들도 있다.

정예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군인 겁쟁자들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려면 산도 뚝고도 바다도 뚝고도 겁사관들의 정신으로 조국방어는 꽃마디에 천지개벽을 안아온것처럼 건설의 대변영기를 펼쳐는 성스러운 투쟁의 선봉에서 계속 영웅적위훈을 세워나감으로써 당군의 자랑스런 모습,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위력을 날림없이 과시하여야 합니다.》

지난 9월 중순 투쟁본때에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안아올 일별안고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조선로동당 창건 71돐 경축

공훈 국가합창단 공연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를 혁명의 위대한 날로 기념하기 위한 공진공예에 위대한 우리 당을 칭송하는 시대의 찬가들이 10월의 하늘을 전경시킴이 울려 퍼지고 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71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 공연이 10월 4, 25분 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공연장소는 백두산건설사원들의 헌명한 영도 밑에 자기의 붉은 기운에 마치고 나고 빛을 아로새긴 때로부터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주체혁명위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왔으며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치가 인민의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워가는 우리 당에 대한 뜨거운 신뢰의 정으로 끓어번지고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총리, 최룡해 총리를 비롯한 당과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당, 무력기관의 일꾼들, 중앙시내 명도연극단원, 흥정의 200일전투 현충단원 일꾼들, 로동학생자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사회주의적극을 체현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공연을 보았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무관부, 무관부 외국의 손님들이 초대되었다.

애국가와 장중한 음악으로 시작된 공연은 애국 찬가 《인민이여! 로동당시여!》, 관현악과 남성합창 《총성의 한길로 가고자라라》, 무관부합창 《당중앙의 빛》, 관현악 《나리여 우리의 당기》, 기

악과 노래현악 《영광드립니다 조선로동당이여》, 남성합창 《우리는 만리마거수》를 비롯한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끝없는 경외심과 우리 당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천만군민의 열렬한 감사의 정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의 위대성을 숭양함에 예술적형상으로 펼친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백두산건설사원들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 밑에 존엄한 력사의 돌출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조국방어의 일대 전진기를 열어나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행로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수령이 위대하여 우리 당이 위대하고 당이 위대하여 인민이 위대하며 조국이 무장인민연대는 철의 진리를 노래한 곡목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우리 당에 대한 칭송의 열기가 더욱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주체혁명의 영광의 년대들에 천만심장을 로동당의 붉은 피로

끓여 한 명목들을 기악과 노래현악으로 특색있게 형성한 《조선로동당 만세》, 《어머니 생일》, 《당을 따릅니다》, 《우리는 당기를 사랑하네》, 《어머니의 목소리》, 《당을 노래하노라》 등의 종목들이 무대에 펼쳐졌다.

새로 창조형성한 남성합창 《당에서 나의 어머니시여》는 이 땅의 천만자식을 사랑과 정을 다해 품어주고 혁명의 길에 걸음을 내세워주는 어머니당을 총정수로 받들어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칙의 신념을 잘 보여 주었다.

연세나 인민을 하느님처럼 떠맡고 인민을 위하여 전희희곡의 기적들을 창조하는 우리 당을 진정한 어머니처럼 품어주고 당을 따르며 영원히 한길을 가려는 일심적 전위대의 철의 의지를 담은 김정일상제관작품 관현악과 남성합창 《영원의 한길로 가자라》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 주었다.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사회주의 조국건설의 평야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진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으며 백두산대국의 일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새겨준 공연은 종국 찬성합창 《진전하는 사회주의로》로 끝났다.

공연은 우리 식의 관현악과 합창, 다양한 성악종목들이 배합된 특색있는 음악형식으로 뜻깊은 10월의 명절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조선로동당 창건 71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 공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펼쳐가는 우리 당의 빛도름 총정수로 받들어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조국건설위업의 최우승리를 앞당겨 나가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기상을 기때문에 노래한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조선중앙통신】



일련된심 총성의 길 가고자라라



갈림길기동려단창립 3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갈림길기동려단창립 30돐 기념보고회가 11일에 진행되었다. 보고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영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총리, 최룡해 총리를 비롯한 당과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당, 무력기관의 일꾼들, 중앙시내 명도연극단원, 흥정의 200일전투 현충단원 일꾼들, 로동학생자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연혁사를 새겨주는데 대하여 축하문을 전달하였다. 축하문은 련단의 수송선사들이 운행길에는 곡선이 있어도 당을 따르는 마음에는 곡선이 있을수 없다는 자각을 지니고 정초기로부터 련명기까지 이르는 수도의 새 기적건설정열과 과학기술정열을 비롯한 150여개의 중요대사건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에 따라나선 수송기동려단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셨으며 당의 건설혁명방향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갈림길기동려단 창립 30돐을 맞아 축하문과 축하공연이 있었다. 축하공연은 관현악과 남성합창 《총성의 한길로 가고자라라》, 무관부합창 《당중앙의 빛》, 관현악 《나리여 우리의 당기》, 기악과 노래현악 《영광드립니다 조선로동당이여》, 남성합창 《우리는 만리마거수》를 비롯한 종목들이 울렸다.

축하문의 내용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영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총리, 최룡해 총리를 비롯한 당과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당, 무력기관의 일꾼들, 중앙시내 명도연극단원, 흥정의 200일전투 현충단원 일꾼들, 로동학생자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갈림길기동려단의 창립 30돐을 맞아 축하문과 축하공연이 있었다. 축하공연은 관현악과 남성합창 《총성의 한길로 가고자라라》, 무관부합창 《당중앙의 빛》, 관현악 《나리여 우리의 당기》, 기악과 노래현악 《영광드립니다 조선로동당이여》, 남성합창 《우리는 만리마거수》를 비롯한 종목들이 울렸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갈림길기동려단의 창립 30돐을 맞아 축하문과 축하공연이 있었다. 축하공연은 관현악과 남성합창 《총성의 한길로 가고자라라》, 무관부합창 《당중앙의 빛》, 관현악 《나리여 우리의 당기》, 기악과 노래현악 《영광드립니다 조선로동당이여》, 남성합창 《우리는 만리마거수》를 비롯한 종목들이 울렸다.

【조선중앙통신】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해주시지2) 관철하기

독자의 편지

지난 5월호 사리원지에 실렸던 '저는 뜻하지 않게 출장길에 장로 소우에 빠져 황해북도인민생활이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의식을 차린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때 저는 최종중상대로 사 생명이 매우 귀중하다고 합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은 거의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저의 소우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

모두가 한 집안, 한 식솔

불었습니. 그들의 지극한 정성속에 저는 며칠만에 의식을 차리게 되었고 호흡은 정상상태로 되었습니다. 이 나날 당당의사 진정함, 간호장 리해정동무들은 최후까지 들어선 저의 입맛을 돌리우기 위해 갖가지 음식도 마련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침상에서 반을 꼬박 새우며 지극한 정성을 기울이고 어서빨리 몸을 회복하야겠다는 각오들이 끓어오르는 진심으로 깨닫고 고맙게주신 당당의사, 간호원들의 모습이 눈에 생생히

애국의 한 마음 안고

북부피해복구전투를 성심성의로 도와나선 선군시대공로자들

정도의 20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빛내여온 그는 종업원들에게 우리 혁명의 만년제 보물 창고로 지켜가고있는 북부피해복구전투를 성심성의로 도와나선 선군시대공로자들. 그는 종업원들에게 우리 혁명의 만년제 보물 창고로 지켜가고있는 북부피해복구전투를 성심성의로 도와나선 선군시대공로자들.

체육성에서

북부전선에 더 많은 체육기재자를

체육성의 일꾼들과 정부원들이 피폐한 주민들의 불행과 아픔을 자기 입처럼 여기면서 불쌍한 주민들의 아픔을 지원으로 아끼고 힘든 매일수속 서로 돕고 위하는 우리 사회의 대동불동심이 발휘되고 있다.

농장이 자랑하는 보배

농진군 송철동농장 수리분조 오세정동무

농진군 송철동농장에 가면 수리분조 오세정동무가 있다. 그는 농진군 송철동농장에 가면 수리분조 오세정동무가 있다. 그는 농진군 송철동농장에 가면 수리분조 오세정동무가 있다.

인도네시아에 갔던 조선준비위원회대표단 귀국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련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 통일자전거행진단이 떠나갔다

2017년 백두산위인선총대회 조선준비위원회 서기장인 박정민 대표가 이끄는 대표단 11명이 귀국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 통일자전거행진단이 떠나갔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독자의 편지

독자의 편지. 독자의 편지. 독자의 편지.

독자의 편지

독자의 편지. 독자의 편지. 독자의 편지.

대조선적대시정책포기는 미국자신을 위해 필요하다

우리 공화국이 이 세상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통방의 핵강국으로 우뚝 솟아올라 그 존엄과 위엄을 방방에 떨치고 있다.

우리가 핵무력고도화에서 커다란 진보를 이룩할수록 미국은 더욱더 비뚤어지며 허우적거리고 있다. 미국이 지금 핵위협수위를 최대로 고조시키면서 우리에게 대한 제재능을 미련없이 때어달라고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위력에 겁을 먹은 자의 단말마적발악에 불과하다.

진 미국우성 차관보 스타츨러 로이 볼 비롯한 미국의 전직 고위관료들과 조선문제전문가들, 주요정책연구기관들은 미행정부가 본토의 안전을 위해서는 조선과의 관계개선의 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들을 강하게 불고나오고 있다. 그 논조를 보면 한 단계에서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해 논의하는 것조차 가치가 없다는 것, 조선이 이미 핵탄두소유를 실현하고 그것을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있기때문에 군사적위협은 매우 현실적이기 때문이라는 것, 조선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과의 외교관계수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층한 연구와 논의 끝에 나온 주장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 대한 입장적인 핵위협감은 이제는 갈망이 넘쳐나는 전혀 통치적 접근도, 군사적 접근도 제재는 우리를 핵무력고도화시켜 주는 것만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없다.

우리가 핵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틀어

질렸기 때문이다.

미집권층이 떠드는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강행하면서 하늘로 날려 보냈다.

오늘에 와서 조선반도비핵화는 미국의 비핵화, 세계의 비핵화와 맥스 없이 어져 있다.

지난 시기 우리는 조선반도비핵화를 통해 남조선에 대한 핵위협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핵전쟁을 조장하고 국제화하면서 《세도봉기》를 실현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 그 도수는 더욱 높아졌다. 부위행정부는 우리를 핵전쟁을 격화시킬때까지 울려놓고 핵무기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폭언까지 늘어놓았다. 조선반도에는 언제 핵전쟁이 일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사태가 조성되었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전쟁위협을 제거해보려는 우리의 노력은 빛을 보지 못하고 지었다. 오히려 핵전쟁위협만 더욱 증대되었다.

우리는 미국의 핵위협을 역제하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막기 위하여 정정당당하게 핵무기를 보유하였다.

그후에도 우리는 대화와 협상의 방법을 주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쌍무 및 다무기로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비핵화와 평화보장문제를 동시에 논의해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실재를 면치 못하였다. 한때 부분적합의가 이루어진적이 있었지만 실지 이행으로는 옮겨지지 못하였다.

근본원인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 실행에 임요하게 때어달린 데 있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해마다 제정발로 감행하고있는 핵전쟁연습들은 그 직접적 표현이다.

현 미행정부시기에 들어와 핵전쟁연습의 규모는 더욱 커지고 회수도 늘어났다. 전쟁연습소용의 도발성적격을 약화시켰지만 아니라 훨씬 더 강화되었다. 미국은 우리를 겨냥한 각종 작전계획들을 작성하고 전쟁연습에 직접 적용하였으며 그것이 우리의 《세도봉기》를 목적으로 하고있다는 것을 내놓고 공개하였다. 미국이 추구한 것은 오직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미국이 핵전쟁을 목적으로 우리를 없애버리려고 미처 남기고있는 조선에 서 핵전쟁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오히려 핵전쟁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오히려 핵전쟁위협만 더욱 증대되었다.

우리는 미국의 핵위협을 역제하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막기 위하여 정정당당하게 핵무기를 보유하였다.

그후에도 우리는 대화와 협상의 방법을 주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쌍무 및 다무기로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비핵화와 평화보장문제를 동시에 논의해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한사코 무지해보려고 필사적으로 압박하는 한 핵무력고도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배가로 강화되었다.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우리를 압살해보려는 것은 개공에 불과하다.

우리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인공지구위성을 만들어 궤도에 진입시키고 해마다 현대적인 새 거리를 일떠세우고있는 미국의 극약무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국제화하고있지만 그것은 도리어 저들의 본토안전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어리석고 우둔한 짓이다.

미국본토의 안전은 핵을 폭력인 우리의 역설 주먹에 들어왔다. 우리가 미국의 위정층에 때어달아놓은 시한탄의 초점소리가 악마세국의 멸망을 분분초초 계속하고 있다.

미당국자들은 조선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무의미하다. 제재나 군사적압박으로 바라는 것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전박이 아니라 마보들이나 찾았듯이, 말도는 조선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만이라고 한 국제문제전문가들의 입을 무심히 논지 않아야 한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도는 미국자신을 위한 일이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 실행에 임요하게 때어달린다면 그만큼 본토의 안전은 더욱더 위태롭게 될 것이다.

리 학 남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일화를

로씨야인러네트통신이 특집

초청으로 그가 무용단을 이끌고 조선에 방문하였다.

무용단 지휘원들과 배우들을 만나주신 그이께서는 팔로바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예술영화를 텔레비전으로 방영하도록 드리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두번째로 예술영화를 본 그이께서는 팔로바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예술영화를 텔레비전으로 방영하도록 드리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2008년 7월 위대한 영웅 장군 김일동지께서 조선반도중진로에 안, 에스, 나제유지나명성 국립아카데미 배로즈카무용단의 공연을 관람하셨다.

무용단 단장인 팔로바는 이젠 소련시기 내외에서 인기 높던 배우였다.

예술영화 《여자의 봄》의 주인공으로 출연하였던 그는 소련문화와 함께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김일동지께서

초청으로 그가 무용단을 이끌고 조선에 방문하였다.

무용단 지휘원들과 배우들을 만나주신 그이께서는 팔로바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예술영화를 텔레비전으로 방영하도록 드리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두번째로 예술영화를 본 그이께서는 팔로바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예술영화를 텔레비전으로 방영하도록 드리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2008년 7월 위대한 영웅 장군 김일동지께서 조선반도중진로에 안, 에스, 나제유지나명성 국립아카데미 배로즈카무용단의 공연을 관람하셨다.

무용단 단장인 팔로바는 이젠 소련시기 내외에서 인기 높던 배우였다.

예술영화 《여자의 봄》의 주인공으로 출연하였던 그는 소련문화와 함께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김일동지께서

초청으로 그가 무용단을 이끌고 조선에 방문하였다.

무용단 지휘원들과 배우들을 만나주신 그이께서는 팔로바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예술영화를 텔레비전으로 방영하도록 드리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두번째로 예술영화를 본 그이께서는 팔로바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예술영화를 텔레비전으로 방영하도록 드리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2008년 7월 위대한 영웅 장군 김일동지께서 조선반도중진로에 안, 에스, 나제유지나명성 국립아카데미 배로즈카무용단의 공연을 관람하셨다.

무용단 단장인 팔로바는 이젠 소련시기 내외에서 인기 높던 배우였다.

예술영화 《여자의 봄》의 주인공으로 출연하였던 그는 소련문화와 함께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김일동지께서

《평양의 주체사상》

이탈리아인사 글

이탈리아인사 《에르메 디일리》 9월 26일자 9면에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이탈리아주체사상연구위원회 단장 마르셀레 안드레아에 글 《평양의 주체사상》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주체사상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동지께서 창시하시었다.

이탈리아인사 《에르메 디일리》 9월 26일자 9면에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이탈리아주체사상연구위원회 단장 마르셀레 안드레아에 글 《평양의 주체사상》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주체사상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동지께서 창시하시었다.

이탈리아인사 《에르메 디일리》 9월 26일자 9면에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이탈리아주체사상연구위원회 단장 마르셀레 안드레아에 글 《평양의 주체사상》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주체사상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동지께서 창시하시었다.

남조선괴뢰당이야말로 악한의 무리

도이힐란드언제언대 우리 나라의 북부지역에 들어온 독실한 세난을 반공화국보안선전에 악용하면서 동쪽을 악랄하게 침투해오는 남조선괴뢰적계당을 규탄하여 9월 2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도의 인간중요, 동족대결에

도이힐란드언제언대 우리 나라의 북부지역에 들어온 독실한 세난을 반공화국보안선전에 악용하면서 동쪽을 악랄하게 침투해오는 남조선괴뢰적계당을 규탄하여 9월 2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도의 인간중요, 동족대결에

도이힐란드언제언대 우리 나라의 북부지역에 들어온 독실한 세난을 반공화국보안선전에 악용하면서 동쪽을 악랄하게 침투해오는 남조선괴뢰적계당을 규탄하여 9월 2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도의 인간중요, 동족대결에

도이힐란드언제언대 우리 나라의 북부지역에 들어온 독실한 세난을 반공화국보안선전에 악용하면서 동쪽을 악랄하게 침투해오는 남조선괴뢰적계당을 규탄하여 9월 2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도의 인간중요, 동족대결에

《씨드》는 남조선 그 어디에도 배치되어서는 안된다

브라질정계인사 글 발표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 로지니오 캄보스가 9월 28일 신문 《오라도 보보》에 《미국과 남조선정당들이 《씨드》를 배척》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미국과 남조선의 폭력당이 19일 고도도끼미사일을 쏘는 《씨드》의 남조선배치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브라질정계인사 글 발표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 로지니오 캄보스가 9월 28일 신문 《오라도 보보》에 《미국과 남조선정당들이 《씨드》를 배척》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미국과 남조선의 폭력당이 19일 고도도끼미사일을 쏘는 《씨드》의 남조선배치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브라질정계인사 글 발표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 로지니오 캄보스가 9월 28일 신문 《오라도 보보》에 《미국과 남조선정당들이 《씨드》를 배척》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미국과 남조선의 폭력당이 19일 고도도끼미사일을 쏘는 《씨드》의 남조선배치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브라질정계인사 글 발표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 로지니오 캄보스가 9월 28일 신문 《오라도 보보》에 《미국과 남조선정당들이 《씨드》를 배척》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미국과 남조선의 폭력당이 19일 고도도끼미사일을 쏘는 《씨드》의 남조선배치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총계 발전하는 조로친선협조관계

한편에 관공회해를 하우팔리 가시고 진회회를 창조하기 위해 헌신국민이 한사람같이 펼쳐 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신과 애국정신을 높이 기르도록 노력해주시고 《조선로동당》을 다 같이 힘써주시고 남조선괴뢰당이야말로 인간기기를 그 만능 악한의 무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한편에 관공회해를 하우팔리 가시고 진회회를 창조하기 위해 헌신국민이 한사람같이 펼쳐 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신과 애국정신을 높이 기르도록 노력해주시고 《조선로동당》을 다 같이 힘써주시고 남조선괴뢰당이야말로 인간기기를 그 만능 악한의 무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한편에 관공회해를 하우팔리 가시고 진회회를 창조하기 위해 헌신국민이 한사람같이 펼쳐 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신과 애국정신을 높이 기르도록 노력해주시고 《조선로동당》을 다 같이 힘써주시고 남조선괴뢰당이야말로 인간기기를 그 만능 악한의 무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한편에 관공회해를 하우팔리 가시고 진회회를 창조하기 위해 헌신국민이 한사람같이 펼쳐 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신과 애국정신을 높이 기르도록 노력해주시고 《조선로동당》을 다 같이 힘써주시고 남조선괴뢰당이야말로 인간기기를 그 만능 악한의 무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한편에 관공회해를 하우팔리 가시고 진회회를 창조하기 위해 헌신국민이 한사람같이 펼쳐 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신과 애국정신을 높이 기르도록 노력해주시고 《조선로동당》을 다 같이 힘써주시고 남조선괴뢰당이야말로 인간기기를 그 만능 악한의 무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한편에 관공회해를 하우팔리 가시고 진회회를 창조하기 위해 헌신국민이 한사람같이 펼쳐 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신과 애국정신을 높이 기르도록 노력해주시고 《조선로동당》을 다 같이 힘써주시고 남조선괴뢰당이야말로 인간기기를 그 만능 악한의 무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한편에 관공회해를 하우팔리 가시고 진회회를 창조하기 위해 헌신국민이 한사람같이 펼쳐 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신과 애국정신을 높이 기르도록 노력해주시고 《조선로동당》을 다 같이 힘써주시고 남조선괴뢰당이야말로 인간기기를 그 만능 악한의 무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한편에 관공회해를 하우팔리 가시고 진회회를 창조하기 위해 헌신국민이 한사람같이 펼쳐 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신과 애국정신을 높이 기르도록 노력해주시고 《조선로동당》을 다 같이 힘써주시고 남조선괴뢰당이야말로 인간기기를 그 만능 악한의 무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정착촌건설에 대한 지원을 중지할것을 미국에 요구

팔레스타인해방조국적 정령위 회의 총비서가 9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정착촌건설에 대한 재정적지원을 중지할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팔로만 이스라엘의 유대민정착촌건설을 반대하여 이르고 시급히 실현행동을 이룩할것을 촉구하였다. 이 글은 팔레스타인 해방조국적 정령위 회의 총비서가 9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정착촌건설에 대한 재정적지원을 중지할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

팔레스타인해방조국적 정령위 회의 총비서가 9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정착촌건설에 대한 재정적지원을 중지할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팔로만 이스라엘의 유대민정착촌건설을 반대하여 이르고 시급히 실현행동을 이룩할것을 촉구하였다. 이 글은 팔레스타인 해방조국적 정령위 회의 총비서가 9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정착촌건설에 대한 재정적지원을 중지할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

팔레스타인해방조국적 정령위 회의 총비서가 9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정착촌건설에 대한 재정적지원을 중지할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팔로만 이스라엘의 유대민정착촌건설을 반대하여 이르고 시급히 실현행동을 이룩할것을 촉구하였다. 이 글은 팔레스타인 해방조국적 정령위 회의 총비서가 9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정착촌건설에 대한 재정적지원을 중지할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

팔레스타인해방조국적 정령위 회의 총비서가 9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정착촌건설에 대한 재정적지원을 중지할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팔로만 이스라엘의 유대민정착촌건설을 반대하여 이르고 시급히 실현행동을 이룩할것을 촉구하였다. 이 글은 팔레스타인 해방조국적 정령위 회의 총비서가 9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정착촌건설에 대한 재정적지원을 중지할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

최근 과학기술소식

다들로지구물리기록기 개발

최근 로씨야의 학자들이 지구를 예측하고 지진발생위험성을 평가하여 지구력의 위치를 확정할수 있는 다들로지구물리기록기 《MGP-01》을 개발하였다.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연구자들이 수치를 리용하여 원자가 격자 드는 새로운 직물재료를 만들었다.

나노다공성 폴리머 필름 《nanoflex》으로 알려진 이 재료로

다들로지구물리기록기 개발

최근 로씨야의 학자들이 지구를 예측하고 지진발생위험성을 평가하여 지구력의 위치를 확정할수 있는 다들로지구물리기록기 《MGP-01》을 개발하였다.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연구자들이 수치를 리용하여 원자가 격자 드는 새로운 직물재료를 만들었다.

나노다공성 폴리머 필름 《nanoflex》으로 알려진 이 재료로

다들로지구물리기록기 개발

최근 로씨야의 학자들이 지구를 예측하고 지진발생위험성을 평가하여 지구력의 위치를 확정할수 있는 다들로지구물리기록기 《MGP-01》을 개발하였다.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연구자들이 수치를 리용하여 원자가 격자 드는 새로운 직물재료를 만들었다.

나노다공성 폴리머 필름 《nanoflex》으로 알려진 이 재료로

다들로지구물리기록기 개발

최근 로씨야의 학자들이 지구를 예측하고 지진발생위험성을 평가하여 지구력의 위치를 확정할수 있는 다들로지구물리기록기 《MGP-01》을 개발하였다.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연구자들이 수치를 리용하여 원자가 격자 드는 새로운 직물재료를 만들었다.

나노다공성 폴리머 필름 《nanoflex》으로 알려진 이 재료로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국산인신형무인기 공개

이런이승무력군위대가 1일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한 신형무인기를 공개하였다.

《사예로호보》명명된 무인기는 목표로 정밀타격하는 4발의 스마트탄을 탑재할수 있는 장거리미사일이라고 한다.

국산인신형무인기 공개

이런이승무력군위대가 1일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한 신형무인기를 공개하였다.

《사예로호보》명명된 무인기는 목표로 정밀타격하는 4발의 스마트탄을 탑재할수 있는 장거리미사일이라고 한다.

국산인신형무인기 공개

이런이승무력군위대가 1일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한 신형무인기를 공개하였다.

《사예로호보》명명된 무인기는 목표로 정밀타격하는 4발의 스마트탄을 탑재할수 있는 장거리미사일이라고 한다.

에벤에서 계속되는 무장분쟁 회해

에벤에서 최근 계속되는 무장분쟁으로 1만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4일 유엔인권고등판판사사무소 대변인은 이 나라에서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무장분쟁

에벤에서 최근 계속되는 무장분쟁으로 1만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4일 유엔인권고등판판사사무소 대변인은 이 나라에서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무장분쟁

에벤에서 최근 계속되는 무장분쟁으로 1만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4일 유엔인권고등판판사사무소 대변인은 이 나라에서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무장분쟁

과거 일본의 원자탄개발책동의 흑막을 파헤친다(1)

비밀계획들에 비낀 극악무도한 야망

세계는 이렇듯 흘러 20세기 전반기에 있는 사진, 사본들을 생생히 기억할만 한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았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냐 옛 시대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변모되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과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속에서도 갈수록 잊고 지우려 하지 않는 것이 전민족이 남긴 피의의 발자취이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해당 기관에서는 20세기 전반기에 일제가 계획하고 추진한 원자탄개발책동의 내막과 우리 나라 북부지역 등에서 강행한 극약무도한 조선인학살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민족으로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 흑막에 묻혀있던 일제의 피아들이 적시 일제 밝혔다.

본지는 남도 부풀어오르는 전민족 일본의 해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일제가 조선사람들을 어떻게 학살하였는가를 세계에 폭로하기 위하여 이 글을 내보낸다.

비밀계획들에 비낀 극악무도한 야망

세계는 이렇듯 흘러 20세기 전반기에 있는 사진, 사본들을 생생히 기억할만 한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았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냐 옛 시대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변모되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과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속에서도 갈수록 잊고 지우려 하지 않는 것이 전민족이 남긴 피의의 발자취이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해당 기관에서는 20세기 전반기에 일제가 계획하고 추진한 원자탄개발책동의 내막과 우리 나라 북부지역 등에서 강행한 극약무도한 조선인학살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민족으로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 흑막에 묻혀있던 일제의 피아들이 적시 일제 밝혔다.

본지는 남도 부풀어오르는 전민족 일본의 해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일제가 조선사람들을 어떻게 학살하였는가를 세계에 폭로하기 위하여 이 글을 내보낸다.

비밀계획들에 비낀 극악무도한 야망

세계는 이렇듯 흘러 20세기 전반기에 있는 사진, 사본들을 생생히 기억할만 한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았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냐 옛 시대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변모되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과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속에서도 갈수록 잊고 지우려 하지 않는 것이 전민족이 남긴 피의의 발자취이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해당 기관에서는 20세기 전반기에 일제가 계획하고 추진한 원자탄개발책동의 내막과 우리 나라 북부지역 등에서 강행한 극약무도한 조선인학살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민족으로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 흑막에 묻혀있던 일제의 피아들이 적시 일제 밝혔다.

본지는 남도 부풀어오르는 전민족 일본의 해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일제가 조선사람들을 어떻게 학살하였는가를 세계에 폭로하기 위하여 이 글을 내보낸다.

최근 과학기술소식

다들로지구물리기록기 개발

최근 로씨야의 학자들이 지구를 예측하고 지진발생위험성을 평가하여 지구력의 위치를 확정할수 있는 다들로지구물리기록기 《MGP-01》을 개발하였다.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연구자들이 수치를 리용하여 원자가 격자 드는 새로운 직물재료를 만들었다.

나노다공성 폴리머 필름 《nanoflex》으로 알려진 이 재료로

다들로지구물리기록기 개발

최근 로씨야의 학자들이 지구를 예측하고 지진발생위험성을 평가하여 지구력의 위치를 확정할수 있는 다들로지구물리기록기 《MGP-01》을 개발하였다.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연구자들이 수치를 리용하여 원자가 격자 드는 새로운 직물재료를 만들었다.

나노다공성 폴리머 필름 《nanoflex》으로 알려진 이 재료로

다들로지구물리기록기 개발

최근 로씨야의 학자들이 지구를 예측하고 지진발생위험성을 평가하여 지구력의 위치를 확정할수 있는 다들로지구물리기록기 《MGP-01》을 개발하였다.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연구자들이 수치를 리용하여 원자가 격자 드는 새로운 직물재료를 만들었다.

나노다공성 폴리머 필름 《nanoflex》으로 알려진 이 재료로